

제주도 최초의 잡지 『신생』 연구*

김 동 윤**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창간 취지와 정치사회적 발언 |
| 2. 창간호·개간호·신년호를 둘러
싼 서지사항 고찰 | 4. 문학작품의 양상과 의미 |
| | 5. 마무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도 최초의 잡지로 알려진 『신생(新生)』 관련 자료가 새로이 발굴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기초적, 실증적 고찰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945년 12월 10일 간행된 『신생』은 사실상 창간호이지만 ‘개간호(改刊號)’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는데, 그것은 잡지를 주도한 고석지가 『평론(評論)』이라는 제호의 신문을 같은 해 10월 25일에 창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승하면서 제주의 문학인들(최길두, 이영복)과 함께 ‘신생사’를 조직하여 간행한 것이 바로 ‘개간호’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신생』이라는 것이다.

종합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잡지는 해방조선이 새로이 건설되기 위해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교수

서 개성·지성·창의가 발휘되는 문화조선을 지향함으로써 문명과 평화에 기여하되, 친일세력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현안이나 행사에도 주목하겠다는 취지로 창간되었다. 『신생』 창간호(개간호)에서는 해방 정국이나 새 조국 건설과 관련되는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한시, 노랫말, 번역소설, 수필 등의 문학적인 글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해방 공간의 제주사회를 다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 제주에서의 문학 활동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요, 제주 출판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며, 4·3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신생』, 『평론』, 고석지, 제주도 잡지, 창간호

1. 들머리

제주도 최초의 잡지로 알려진 『신생(新生)』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논의들¹⁾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신생』 ‘신년호’(1946. 1. 20.)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창간호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못 언급되었으며 그것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당시로서는 1945년에 나온 창간호의 존재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자료가 발굴되면서 새로운 연구가 필히 이루어져야 마땅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제주문학관 건립 개관을 앞두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간호(改刊號)’라고 이름 붙여진 1945년 12월 10일자 『신생』이 발굴

1)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1997; 김영화, 『제주문학 80년』,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김동윤,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 『신생(新生)』을 중심으로』, 『영주어문』4, 영주어문학회, 2002.

되었던 것이다. 2021년 10월 23일 제주문학관 개관과 함께 그 상설전시실(2층)에 이 책의 존재가 소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것의 간행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신생』 ‘개간호’(사실상의 창간호)에 대한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고찰이 급선무다. 그 간행 배경과 경위, 주체와 집필자들, 구성과 내용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따져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왜 ‘창간호’가 아니라 ‘개간호’라는 이름을 내세웠는지에 대해 밝히고, 그것을 ‘신년호’(사실상의 제2호)에서 기왕에 확인된 사항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잡지의 정체와 성격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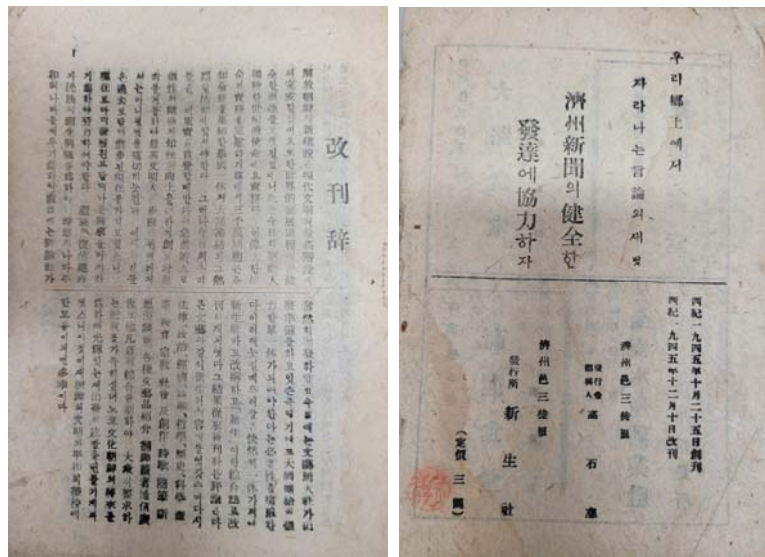
종합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잡지는 문학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글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해방 공간의 제주사회를 다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를 통해 문학사적인 면에서 해방 직후 제주에서의 문학 활동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임은 물론이요, 언론학 분야에서도 제주 출판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며, 1945년 해방 직후의 제주사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4·3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창간호·개간호·신년호를 둘러싼 서지사항 고찰

제주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생』 개간호(<그림>)는 크기가 12.5cm×18.0cm이며,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쪽수는 36쪽이다. 앞표지가 낙장된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하다. 제주읍 삼도리에 소재한 ‘신생사(新生社)’에서 간행하였고, 정가는 3원(圓)으로 매겨졌다. 고석지(高石志)²⁾가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국한문혼용체이다. 뒤표지의 하단에

2) 고석지의 본명은 고일호(高日昊)이다.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에서 법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있는 간기(刊記)를 보면 개간호의 발행일은 1945년 12월 10일이다. 그런데 그 간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날짜가 명기되어 있다.



〈그림〉 앞표지가 낙장된 『신생』 개간호의 1쪽(왼쪽)과 뒤표지의 바깥 면(오른쪽).

西曆一九四五年 十月 二十五日 創刊

西曆一九四五年 十二月 十日 改刊

위의 간기에서는 창간일은 1945년 10월 25일이고, 개간일은 같은해 12월 10일임을 밝히고 있다. 개간(改刊)은 원래 ‘책의 원판을 고쳐서 다시 간행함’의 뜻이지만,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여기서는 재창간(再創刊)의 의미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 창간호가 따로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창간을 해야 했을까. 다음은 개간호에 수록된 『개간사(改刊辭)』의 후반부(㉠)와 『편집 소식』의 전반부(㉡)로, 잘 들여다보면 그 의문이 해소된다.

①조국의 부활 건설과 민족의 창생 흥륭(興隆)을 위하여 이상(理想)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전일에는 평론사(評論社)가 분연히 출발하였고, 금일에는 문예동인사(文藝同人社)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즉, 여기에도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단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감한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들은 결연히 일체가 되어 신생사라고 개칭하고 『신생』이란 종합지로 개간(改刊)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 발간하던 『평론(評論)』은 다른 문예와 같이 『신생』의 내용에 들어갔으며 다시 법률, 정치, 경제, 시사, 철학, 역사, 과학, 산업, 교육, 종교, 사회급(及) 창작, 시가, 수필, 단상, 만담 등 각종 문예품 소개 번역, 독자통신, 광고 기타 범백(凡百)의 종합을 기하여 (...) (1쪽)³⁾

①편집을 마치고 길이 숨을 쉬니 동산(冬山)에 춘풍(春風)이다. 어찌 다망(多忙)했던지 조금도 쉬어 보지 못하고 사고가 너무해서 예정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조선 역사와 전설과 철학 종교 기타 문예작품 몇 가지 떨어진 것은 큰 유감이다. 지난 10월 평론사가 출발하였을 때 격일(隔日) 간행으로 하였던 것이 3일 1회로 되고 그것도 약속대로 되지 안 해서 주보(週報)로 발행하려고 하였는데, 제주도의 언론기관이 각각 미약한 입장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그 강화책을 강화하지는 동의(同議)가 있어서 전부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전력을 기구의 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한 결과, 평론사는 다른 문예동지와 회동하여 신생사로 개칭하고 『신생』이라는 월간종합잡지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지면(紙面)에서는 『제주민보(濟州民報)』와 『백록일보(白鹿日報)』가 합동하여 『제주신문(濟州新聞)』을 발간하게 되었으니 우리 제주의 언론이 두 기관으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강력한 재출발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언론기관의 의미 깊은 대동단결이 얼마나 기쁠까. 『제주신문』도 건전한 발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신생』도 반드시 향상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34쪽)

3) 여기서 『신생』 개간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편의상 현행 규정에 준하여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고쳐 인용한다. 아울러 원문은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바꿔 표기하는 가운데 그 일부만 ()에 한자를 병기기로 한다. 다만, 방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 표기를 살려 인용한다. 밑줄은 인용자가 표시함.

우선, 위의 인용들을 보면 해방공간의 제주에서 신문과 잡지를 간행코자 하는 의욕들이 넘쳐났음을 알 수 있다. 새 조국 건설의 열망이 변방의 언론 분야를 통해서도 분출했음이 충분히 감지된다. 그런 열기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신생』이 해방등이로 창간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애초에 ‘평론사’가 『평론』이란 이름으로 격일간 신문을 창간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3일에 1회 발간으로 조정되고, 그것도 약속대로 되지 않아서 후보로 발행하려고 하였는데, ‘제주도의 언론기관이 각각 미약한 입장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신문이 아닌 잡지로 재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평론』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2~3회 정도만 어렵게 간행한 후에 난관 돌파를 위한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간기에서 앞에 명기한 ‘1945년 10월 25일 창간’이란 바로 『평론』의 창간일을 말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평론』과 관련해서는 이영복(이영구, 1921-2004)⁴⁾이 증언한 바 있다.

이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 창간호(『신생』 창간호: 인용자 주)라고 알려진 것은 10월 경 ‘평론’이라는 제호로 나왔고 A3용지를 세 번 접어서 펼쳐가며 볼 수 있도록 인쇄하여 잡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석지가 잡지 제작에 시일이 걸리자 독자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도 미국헌법해설만을 게재하였다 한다.⁵⁾

이러한 증언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이번 개간호 발굴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잡지 제작에 시일이 걸리자 독자적으로 『평론』을 제작했다는 증언

4) 이영복(李永福)의 본명은 이영구(李永九)다. 4·3을 거치면서 유격대 제2대 사령관인 이덕구(李德九, 1920-1949)의 친족이라는 오해를 받는 바람에 1953년에 개명했다고 한다. 『제주시 문화예술인 인명사전』, 제주시, 2016, 70쪽 참조.

5) 김동윤, 위의 글, 264-265쪽. 이 증언은 2002년 초에 제주시 이도2동의 이영복 자택에서 청취한 것이다.

은 부정확한 기억인 것 같다. 무엇보다 이영복의 증언에서 가장 큰 문제점⁶⁾은 『신생』 개간호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영복의 증언은 1945년 10월 25일에 고석지에 의해 『평론』이란 매체가 창간된 사실과는 일치한다. 아울러 ‘A3용지를 세 번 접어서 펼쳐가며 볼 수 있도록 인쇄’하였다는 증언 내용은 그것이 신문 형식을 추구했던 매체임을 입증해 준다.⁷⁾

앞의 개간호 「편집 소식」 인용문에 보면, ‘지면에서는 『제주민보』와 『백록일보』가 합동하여 『제주신문』을 발간하게 되었으니 우리 제주의 언론이 두 기관으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강력한 재출발을 보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것도 제주지역 신문의 초창기 역사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이는 1945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주에는 『제주민보』와 『백록일보』라는 2개의 신문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 이 두 매체가 『제주신문』으로 통합하여 재출발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주 최초의 지방 신문인 濟州新報는 1945년 10월 1일에 창간”되었는데 “창간 당시 제호는 濟州民報였”⁸⁾으며, “1945년 11월 중순 진보주의 청년단체인 ‘白鹿會’(회장: 鄭基俊)에서 白鹿日報를 창간”했지만 “창간호 발행 후 용지난으로 다음 호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주신보 제작자들의 제안과 지역 인사들의 조정으로 두 신문이 통합하여 백록일보는 종간됐다”⁹⁾는 이문교의 『제주언론사』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제주민보』와 『백록일보』가 통합한 신문의 이름이 『제주언론사』에는 『제주신보』로, 『신생』 개간호에는 『제주신문』으로 각각 명기된 점은 다르다. 아마도 처음에 통합할 때는 『제주신문』이었다가 1946년 1월 26일¹⁰⁾ 『제주신보』로 다시 바꾸는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6) 물론 증언 채록자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7) 제주 언론사(言論史)에서는 이 『평론』이란 매체가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고 있다.

8) 이문교, 앞의 책, 126쪽.

9) 위의 책, 138-139쪽.

10) 1946년 1월 26일 김진수는 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회사 조직을 갖추고, 미군정

『신생』 개간호의 뒤표지 상단(앞의 <그림> 참조)에 “우리 향토에서/ 자라나는 언론의 새 벗/ 제주신문의 건전한/ 발달에 협력하자”는 『제주신문』 광고가 실렸고, 신년호에도 ‘제주신문사 기자 일동’의 광고가 수록되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이 편집진의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이영복의 증언에서는 왜 『신생』 개간호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까. 개간호에 이영복의 「원한(怨恨)」이라는 시 작품까지 실려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잡지 제작에 시일이 걸리자 고석지가 독자적으로 제작했으며 거기에 미국헌법해설만이 실렸다는 이영복의 증언 내용을 다시 들추어보면 실마리가 풀린다. 잡지 제작에 시일이 걸리자 고석지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매체가 『평론』이 아니라 『신생』 개간호였다고 보게 되면 의문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간호에 「북미합중국 헌법 해설」이 6쪽(전체 지면의 1/6 분량)에 걸쳐 수록된 것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글들이 고석지가 집필했으리라고 추정됨을 감안하면 고석지의 미국헌법해설만이 실렸다는 이영복의 증언은 과장된 표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앞서 거론한 「개간사」와 「편집 소식」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자. 『평론』, 『신생』 개간호, 『신생』 신년호 등 일련의 간행물들의 궤적을 정리해낼 수 있다.

“전일에는 평론사가 분연히 출발하였고, 금일에는 문예동인사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즉, 여기에도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단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감한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들은 결연히 일체가 되어 신생사라고 개칭하고 『신생』이란 종합지로 개간하게 되었다.”라는 「개간사」의 부분에서 보면, ①신문사 성격의 평론사(고석지 중심)가 먼저 출발하였고 ②문예지를 내기 위해 문예동인사(이영복, 최길두¹¹⁾ 중심)가

법령 제19호(1945. 10. 30. 공포)에 따라 당국에 『제주신보』를 등록하여 대표로 취임했다. 위의 책, 128쪽.

11) 최길두(崔吉斗, 1917-2003)는 제주읍 삼도리 출신으로 1935년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하여 일제강점기에는 농회기수를 지내고, 해방 직후에는 제주중학교에서

별도로 출발준비를 하고 있었는데¹²⁾ ③두 주체들이 통합하여 ‘신생사’라 개칭하면서 종합잡지 『신생』을 펴내되 기왕의 『평론』지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¹³⁾ ‘창간’이 아니라 ‘개간’이라고 명명한 것임이 거의 틀림없다. “평론사는 다른 문예동지와 회동하여 신생사로 개칭하고 『신생』이라는 월간종합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편집 소식』에 따르면, 『신생』은 월간종합잡지를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10일에 『신생』 개간호가 간행된 지 40일 만인 1946년 1월 20일에 『신생』 신년호가 나왔는데, 이 신년호는 ‘1,2월 합호(合號)’임을 표지에 명기하였고 『현상 논문 모집』을 통해 원고 마감일을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3월호 신생 지상에 발표”¹⁴⁾하겠다고 공지한 점을 볼 때 간행 주체들이 월간 발행 원칙을 견지코자 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개간사』에는 “종래 발간하던 『평론』은 다른 문예와 같이 『신생』의 내용에 들어갔으며 다시 법률, 정치, 경제, 시사, 철학, 역사, 과학, 산업, 교육, 종교, 사회 급(及) 창작, 시가, 수필, 단상, 만담 등 각종 문예 품 소개 번역, 독자통신, 광고 기타 범백의 종합을 기하여” 대중이 요구하는 기사를 가득히 실어 놓는다고 하였으나, 실제 지면에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편집 소식』에는 “어찌 다망(多忙)했는지 조금도 쉬어 보지 못하고 사고가 너무해서 예정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조선 역사와 전설과 철학 종교 기타 문예 작품 몇 가지 떨어진 것은 큰 유감이다.”라고 적어 놓고 있다. 다음달 간행된 신년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¹⁵⁾ 개간호에 실리지 못한 내용들이 상

교편을 잡았다. 『제주문학: 1900-194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72쪽.

12) “45년 8·15. 드디어 조국광복을 맞은 나는 중단된 문학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9월 초순 경 제주시로 달려와 전부터 사귀어오던 崔吉斗 씨를 만나 작고한 高石志(日晷) 씨와 함께 新生誌 발행에 착수하였다.”(이영복, 『나의 재직 시절』, 『제주신문』 1979.8.20.)는 언급에서 이런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13) 고석지가 용지 공급 등 경제적 부담을 많이 졌다고 한다. 이영복 증언.

14) 『현상 논문 모집』, 『신생』 신년호, 1946.1, 61쪽.

15) 신년호에 수록된 글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다.

당 부분 수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고석지를 중심으로 하는 평론사의 신문 『평론』은 1945년 10월 25일 창간하였으나 지속 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가칭 문예동인사를 꾸려 문예지 간행을 준비하던 최길두와 이영복을 만나 함께 신생사를 조직하고 월간 종합잡지를 표방한 『신생』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신생』은 1945년 12월 10일 ‘개간호’가 간행된 데 이어, 이듬해 1월 20일 ‘신년호’가 1·2월 합본호로 나왔으며, 곧이어 3월호의 간행이 기약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출간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두 차례 간행된 제주도 최초의 잡지 『신생』은 ‘개간호’가 창간호, ‘신년호’가 중간호가 된 셈이다.

개간호를 간행할 당시 신생사는 나름의 조직을 갖추고 의욕적인 출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국을 확장코자 하오니 지국 의향에 뜻이 있는 분은 본사로 상의하여 주십시오.”(28쪽)라는 사고(社告)까지 내었다. 잡지 맨 끝에는 「인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잡지사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 김석운/ 부대표주필: 고석지/ 편집국장: 최길두/ 기자대표: 이영

「권두언(卷頭言)」/ 「신춘(新春)의 마음」/ 「신년(新年)을 맞이하여」—신생사 일동/ 「근하신복(謹賀新福)」—원문상/ [시] 「폐허(廢墟)」, 「애빈(哀貧)의 농자(農者)」—최일(최길두)/ 「연두 소감(年頭所感)」—제주도 미군정장관 스타우트 소좌/ 「연두(年頭)의 노래」—신생사/ [논설] 「정신혁명(精神革命)」—고석지(고일호)/ 「일월(一月) 오일(五日) 기억(記憶)의 날」/ 「신탁관리(信託管理) 절대(絕對) 반대(反對)」/ 「미국헌법 해설(美國憲法解說) 속(續)」—고석지/ 「종교(宗教)와 사회사조(社會思潮)」—이일선/ [소설] 「야로(夜路)」—이영구(이영복)/ 「진리(眞理)와 인생(人生)」—최일(최길두)/ 「도의(道義)의 옹호(擁護)」—김종륜/ [산문시] 「파선(破船)」—김영, 「시인향」—KT(최길두)/ [시] 「바다의 사색(思索)」—김병현, 「추억(追憶)」, 「회루(悔淚)」, 「우울(憂鬱)」—이영구/ 「전원(田園)에서」—김필규/ 「만가(輓歌)」—김덕양/ 「향토시인(鄉土詩人) 고(故) 김이옥 군(金二玉君)을 추도(追悼)하고」—편집부/ [학생논단] 「농촌 개척(農村開拓)의 새 각오(覺悟)를 가져라」—김기환/ 「현상 모집(懸賞募集)」/ 「편집 소식(編輯消息)」

구/ 영업국장: 고태길/ 통신국장: 김필호/ 총무국장: 고석지/ 경리부장:
이호택/ 인쇄국장: 강성수/ 사원: 이영자 (36쪽)

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석윤(金錫潤)은 그 즈음 『서울신문』 제주지국장을 역임한 이와 동일인이 아닌가 한다. 1947년 12월 20일 『제주신보』와 8개 중앙지 지국장들을 회원으로 ‘제주도 기자회견’이 제주읍내 창덕여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는데, 김석윤은 이 때 기자회견장이 된 인물이다.¹⁶⁾ 『신생』 신년호에는 “서울新聞 濟州支局 支局長 金錫潤 外 一同”의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¹⁷⁾ 고석지가 개간호에서 부대표 주필이면서 총무국장을 겸한 점을 보면 사실상 그가 운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년호에는 아예 고석지가 발행인 겸 편집인(원문에는 ‘發行 兼 編人’)으로 나와 있다. 인쇄국장 강성수(姜成洙)는 강성추(姜成秋)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신년호에는 강성추(姜成秋)가 인쇄인으로 나와 있다는 점, 『신생』 신년호의 “인쇄는 岡本 인쇄소에서 했고, 인쇄인은 姜成秋로 岡本 인쇄소 대표 姜成彦의 동생”¹⁸⁾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문학 활동을 하던 최길두와 이영복 양인이 고석지와 함께 편집의 중심에 있었음도 확인된다.

3. 창간 취지와 정치사회적 발언

광고¹⁹⁾를 제외하고 『신생』 개간호에 수록된 글은 모두 18편이다. 글

16) 이문교, 앞의 책, 147쪽.

17) 제주읍 이도리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인 김석윤(金錫允, 1877-1949)과는 한자가 다르다. 김찬흡, 『20세기 제주 인명 사전』, 제주문화원, 2000, 130-131쪽 참조.

18) 이문교, 앞의 책, 141쪽.

19) 『신생』 개간호에 수록된 광고는 다음과 같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검사국, 향교중학원(이상 9쪽), 명신학원(14쪽), 이

제목과 글쓴이를 게재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간사」
 「회고(回顧)」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기원」—석지(石志)
 「민주주의 국가와 그 헌법」
 「북미합중국 헌법 해설」
 「해방 조선의 사회 문답」
 「긴급한 교육 문제: 각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즉시 병설하자」
 「자주독립의 기초」—석지
 「잠깐 현대 경제사회조직의 재고찰(再考察)을 하여보자」
 「신평기비판론(新風紀批判論)」
 「불란서혁명 회상기」—석지
 「긴급 제의」
 [문예/소설] 「가을의 일야(一夜)」—코리크, 譯 SKT
 [시] 「원한(怨恨)」—이영구
 [노랫말] 「한글 노래」—이극로
 [한시] 「추월(秋月)」—오도시사(吾道詩社)
 「편집 소식」
 「인사?」²⁰⁾

전체 글 중에서 글쓴이를 명기한 글은 7편에 불과하다. 그 중 3편의 글쓴이가 ‘석지(고석지)’인데, 무기명 글들도 대부분 고석지가 쓴 것으로 보인다. 거의 시사적·정치적인 내용들이다. 문학 관련 글만 고석지가

화식당(28쪽), 음악동지회, 박의원, 정화의원, 완정당시계점(이상 35쪽), 대로식당, 동아식당, 고려식당, 전남수산홍업사 제주영업소(이상 뒤표지 안쪽), 제주신문(뒤표지 바깥쪽).

이 가운데 향교중학원(제주중학교), 음악동지회, 대로식당, 전남수산홍업사 제주영업소 등 네 곳은 신년호에도 연이어 광고가 수록되었다. 신년호에는 훨씬 많은 광고가 수록되었는데, 이들 광고를 통해 당시 제주 사회의 모습을 읽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목차에서 [시], [노랫말], [한시]는 편의상 인용자가 붙인 것이다.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 소설 『가을의 일야』의 작가 ‘코리크’는 막심 고리키, 번역자 ‘SKT’는 최길두이다. 그밖에 문학 작품으로 이영구의 시 1편, 이극로의 노랫말 1편, 오도시사의 한시 1편이 각각 실려 있다. 신년호의 경우 문학 작품의 비중이 높은 편인 데 비해 이 개간호에는 그 비중이 낮다. 이는 신년호가 고석지·최길두·이영복 3인이 비교적 균형 있게 참여하여 제작된 반면, 개간호는 고석지 1인을 중심으로 출간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²¹⁾

개간호가 창간호나 다름없으므로, 『개간사』는 사실상 ‘창간사’라고 할 수 있다. 고석지가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개간사』를 통해 이 잡지의 창간 취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해방조선의 신건설(新建設)은 현대문명의 최고 단계에서 완성할 것이요 또한 세계적 발전 과정에서 건전한 발달을 보게 될 것이니 차(此) 금일의 조선인 독특한 세계적 사명이요 책무다. 이 위대한 사명과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삼천만 동포는 전지전능을 집결한 거국일체의 대동단결과 그 열렬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일의 우리들은 이 중책을 자각할 때 반드시 급진적으로 개성의 개발과 지성의 향상을 다하며 창의와 사고를 거듭하여 최고문명인의 보조에 뒤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을 통절히 느낀다. 이제 우리들은 과거보담 더 진보된 현재를 가지고 있으니 현재보다 더 발전된 보담 더 나은 장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대중이 요구하는 기사를 가득히 실어 놓고 문화조선의

21) 다음의 『편집 소식』 후반부는 최길두가 일부 도운 가운데 고석지가 거의 전담하여 개간호가 출간된 정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집필을 같이 하기로 하였던 동지들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나오지 못하고 천재의 문인 최길두 군이 들어와서 열렬한 활동을 하여 지면을 확장하자는 자신 있는 그 희망의 소리에 문심(文心)이 변하여 신년호로부터는 지수(紙數)를 증가시켜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평이간결한 대상의 범으로 비약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이제 최군의 공로를 사함과 동시에 각 방면에서 편달하여 주는 원의(原諒)를 아울러 경사(敬謝)하는 바이다. 본 호는 이러한 사정으로 불만족할 점이 있으나 신년호는 대상의 기대에 반하지 않을 것을 맹약하며 이 편집을 마친다.”(34-35쪽)

장래를 위하여 광휘 있는 새 출발의 깃발을 번들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새 조선의 문명과 평화의 유지에 한 도움이 되면 다행이다. (1쪽)

‘해방조선의 신건설(新建設)’이라는 조선인의 ‘위대한 사명과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거국일체의 대동단결과 그 열렬한 활동이 있어야’ 하느냐, ‘급진적으로 개성의 개발과 지성의 향상을 다하며 창 의와 사고를 거듭하여 최고문명인’의 대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대중이 요구하는 기사를 가득히 실어 놓고 문화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광휘 있는 새 출발’을 하게 되니 ‘새 조선의 문명과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해방조선이 새로이 건설되기 위해서 개성과 지성과 창 의가 발휘되는 문화조선을 지향함으로써 문명과 평화에 기여하는 잡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창간 취지는 해방 직후에 대거 간행된 잡지들²²⁾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던 바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되나, 개성·지성·창 의·문화·평화 등이 강조된 점은 눈길을 끈다. 변방 제주에서 펴내는 매체일지라도 지적·독창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서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상을 꿈꾸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개간사』에 바로 이어 수록된 『회고』도 창간 취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도 역시 고석지가 쓴 것으로 보인다.

(前略) 일본놈 위하기를 자기 할오바니 위하듯 하였고 아유구용(阿諛苟容)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눈물로 한탄한 사람은 누구던가. 몇 사람이나 있었나. 일본사람의 악행을 말하면 곱씹새를 하여서 아무 사상이 없는 사람을 비일(排日)사상가라 사회주의자라 공산주의자라 민족주의자라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일본놈 조름에 쫓아다니는 미운 놈 야심가들 여러 사람에게 주먹먹을 준 일이 있었다. 지금 자유조선, 이상조선의 건설도정에

22) 전국적으로 1945년에 36종의 잡지, 이듬해에는 140종에 이르는 잡지가 출판되었다고 한다. 전영표, 『한국출판론』, 대광문화사, 1987, 101-102쪽; 김창집, 『출판계의 4년』, 『출판대감』, 1949, 4쪽. (이문교, 앞의 책, 141쪽에서 재인용.)

그러한 더러운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새 조선의 오물이니 이것을 세척(洗滌)하여야 한다. 나는 우리 향토 제주의 자랑거리 미거미훈(美舉美勳)을 찾아서 기록하고자 한다. 요즈음 우리 고향 동무들이 열렬한 활동을 하여 강습운동 연예(演藝) 등 각종 행사가 틈틈이 있고 또 그 태도가 씩씩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어찌 반가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언론이 부족하고 언어가 불달(不達)한 것에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쪽)

친일과 척결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읽을 수 있다. 일본에게 저항하면 비일사상가·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민족주의자라고 처벌되었던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일본인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며 출세하려는 조선인이 많았음을 한탄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렇게 일본인 뒤통무니나 쫓아다니는 미운 놈들을 때려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도 덧붙인다. 그런 자들은 이제 새 조국 건설의 오물인 만큼 확실히 세척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바, 『신생』에서 그런 일을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제주의 자랑거리나 미담들을 찾아 기록하고 제주에서 열리는 강습운동이나 연예 행사 등을 포착해서 소개함으로써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에도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할으바니’(할아버지), ‘조름’(뽕무니) 등의 제주방언도 구사되고 있는데,²³⁾ 이는 제주 언론의 작은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기원』, 『민주주의 국가와 그 헌법』, 『북미합중국 헌법 해설』은 서로 연결된 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필자를 밝힌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기원』은 물론이요 다른 두 글 역시 그 내용으로 볼 때 고석지의 글임이 거의 확실하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기원』에서는 먼저 어원에 따라 민주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미국에서는 그것이 “인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민중정치”

23) 글쓴이가 토박이 지식인이기에 이러한 제주방언 어휘들을 무의식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의된다고 소개한다. 이어 “희랍시대의 인민들이 그 당시의 불공평한 귀족정치에 반대하여 봉기한 평민정치운동이 그 시초”라고 그 기원을 말한 후 “각 국가의 역사를 본다면 반드시 그 국가의 독특한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전봉준이는 근대조선의 그 대표자”(3쪽)라고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민주주의 국가와 그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어지는 『북미합중국 헌법 해설』을 위한 ‘편집자 주’로 볼 수 있는 짧은 글이다. “민주주의 국가와 그 국민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미국 헌법의 개념과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 삼천만 조선민족은 이 복잡다단한 건국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금후 간명하게 연재하기로 한다”(4쪽)고 적고 있다.

『북미합중국 헌법 해설』은 단순한 미국 헌법 해설이 아니다. ‘북미합중국연방정부의 기원’이라는 부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공화제 헌법을 확정하고 아메리카합중국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 즉 대륙회의와 헌법회의 등을 거치며 연맹규약과 신헌법 등을 타협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은 신년호에 『미국 헌법 해설(속)』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추가로 설명해 간다. 고석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용의주도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던 것 같다.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본받되 민중적·민족적 국가로서의 면모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조선의 사회 문답』은 ‘해방의 정의(定義) 여하(如何)’와 ‘자유주의란 무슨 말인가’라는 두 가지 물음에 간단히 답하는 형식의 글이다. 해방이란 “각인(各人) 독특한 인생관에서 이상 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개인적 또는 물질적 정신적의 모든 속박을 떠나 자유로 행동함”으로 정의하고, 자유주의란 것은 “각 개인이 자주적 정신으로 모든 속박

과 압제를 떠나 자기 희망대로 자기의 향상 발전에 활동함”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는 “자유를 자중하노라고 너무 긴장하면 자유해방을 자박(自縛)하기 쉬우니 정의의 길, 최선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 행동은 더욱 더욱 확대 강화하여 자유해방의 목적 실천에 맹진”(10쪽)하자고 마무리 짓고 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편집 작업 도중 긴급하게 집필되어 실린 것으로 보이는 「긴급 제의」는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다. 항간에 “원활한 경제의 조정을 청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일부에 있다”면서 글쓴이(고석지로 추정됨)는 이들을 ‘망국론자요 건국방해자’로 규정한다. “긴급한 과제의 난관인 경제조정책을 무리한 사업이라고 하여 후일로 미루자는 사람은 조선의 독립과 국민조직을 방해하는 큰 반역자”라는 것이다. 무릇 “정치라 함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의미하며 경국제민은 경제를 의미”(27쪽)하는 것이기에 정치와 경제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운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금일 우리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사회상 혹은 경제상의 자유보다도 우선 첫째 정치상의 자유 민권에서 말하고 있으나 실은 빵을 떠나서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28쪽)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친 다음에는 “경국제민이 정치의 근본이다”라는 표어를 큰 활자로 제시해 놓기도 했다.

고석지의 「자주독립의 기초」도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글이다. 현실적인 객관적 정세로 38선 설정의 문제, 해외동포 귀환의 문제, 법률제도 확립의 문제를 먼저 제시한 후, “아무리 생각하여도 자주독립의 기초는 경제에 있다”(45쪽)고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긴급히 무산자 대중의 생활에 전 국정의 지표를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면서 맹자에 나오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삼천만 조선민족은 전부가 무산자 무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경제계의 유능한 동포와 무항산 대중의 분기(奮起)를 요망한다”(46쪽)면서 글이 마무리 되었다.

『잠깐 현대 경제사회조직의 재고찰(再考察)을 하여 보자』는 자본주의 제도와 자본가제 생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이 “개인주의 법제와 영리주의와 기업조직의 3대 기호 위에 성립”(17쪽)된다는 점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덧붙여 놓았다. 고석지로 보이는 글쓴이는 여기서도 자주독립을 위한 경제적 기초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정치적인 것만 강조되기 쉬운 해방공간에서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강조하고 있음은 돋보이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불란서혁명 회상기』는 근대 유럽 제국의 세태가 일변하여 세계 형세에 큰 영향을 준 것이 프랑스대혁명이기에 이것이 현대 조선인의 세계적 사명 수행의 책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란 취지에서 고석지가 쓴 글이다. 혁명의 원인, 전개 과정, 결과는 물론이요 나폴레옹 전쟁까지 서술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금일의 해방 조선은 오로지 혁명조선”(26쪽)이라고 전제하고, “현실은 인류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불가피의 사실이며 압박, 고통, 착취, 침략, 약탈, 기망(欺罔), 난맥(亂脈)의 난립(亂立)의 대상이 서로 착종하는 끝에는 반드시 혁명만이 있고 전투만이 있다.”(26-27쪽)고 다소 급진적인 발언을 한다. 이러한 제주 지식인의 생각은 이후 시작된 4·3항쟁이 무장봉기로 전개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긴급한 교육 문제: 각 초등학교²⁴⁾에 중학교를 즉시 병설하자』는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글들이다. 필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고석지의 글일 가능성이 크다. 글쓴이는 일제강점기 교육의 폐해에 대해 짚은 다음, 해방조선의 교육은 ‘자유교육, 평민교육, 민권교육’이어야 한다고 말

24) 이 글에서는 제목과 본문(12쪽)에 ‘초등학교(初等學校)’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소학(小學)’·‘소학생(小學生)’과 ‘국민학교(國民學校)’라는 명칭도 본문(12쪽, 13쪽)에 사용되고 있다. 해방직후에는 이런 명칭들이 한동안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다. 그리고 “소학 중학을 타 지방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무산아(無産兒) 천재아(天才兒) 유능아(有能兒)를 희생하는 일본 제국주의 교육법”이었다며 “각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즉시 병설”(12쪽)하자고 제안한다. ‘대정중학’, ‘향교중학’, ‘제주중학’, ‘조천중학’의 출발에 기대를 모으면서, 제주도내 13면에 13개의 중학교를 초등학교에 병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초등학교는 마을마다 의무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 문제는 “착취한 금전, 사취한 금전, 횡령한 금전, 천인저금, 국방저금, 감사저금, 봉공회비(奉公會費), 신사비(神社費), 근로봉사비, 암취(闇取)자본, 음장(陰藏)현금 이런 것도 있고 없는 것을 찾아볼 것이고 또 매일 부지런히 노동하여 교육비를 벌어 내면 넉넉히 된다”고 하면서 “이상이니 공상이니 하여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일본놈”(13쪽)이라고 역설한다. 아울러 기존 재학생들은 ‘일본적 차등’에 따라 ‘운동’(청탁)으로 입학된 경우가 많으므로 재학생들의 지능과 성적을 재평가하여 열등한 학생은 졸업시키지 말고 영리하고 유능한 고령의 학생들을 특별 진급시켜서 속히 사회로 내보내자는 제안도 한다.

요컨대 『신생』의 창간 취지는 해방조선이 새로이 건설되기 위해서 개성과 지성과 창의가 발휘되는 문화조선을 지향함으로써 문명과 평화에 기여하되, 친일세력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행사에도 주목하겠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간호에 수록된 18편의 글 중 7편이 기명이고 그 중 3편은 고석지의 글인데, 무기명 글들 대부분도 고석지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와 자유에 기반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헌법 제정의 중요성, 경제적 안정, 압제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 운영하자는 지역 관련 제안도 내놓고 있다. 여러 글들을 종합해 볼 때 고석지는 경제를 강조하는 중도적 진보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4. 문학작품의 양상과 의미

『신생』 개간호에서 문학에 속하는 글은 시, 한시, 노랫말, 번역소설 각 1편씩이 있다. 이밖에 『신평기비판론』의 경우는, 시사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세태비판적인 수필적 성격도 있는 만큼 문학적인 글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이영복의 시 『원한』은 온전한 한글 창작으로는 유일한 작품이다. 실연의 감정을 담아낸 소박한 서정시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사람아
 너- 그리하지 말아
 빨아먹은
 불레쥬생이 같은 내 사람이기로소니
 사람아
 너- 그리하지 말아……
 동지선달 해묵은 아까시아
 까시남에도 따뜻한 제 시절 돌아오면
 하이얀 꽃이 피나니
 사람아
 너- 그리하지 말아
 아모리
 봉황새의 날개를 가졌기로서니
 저- 창공에 나는 자유이다
 넌들 넌들 다들 법이 그 어데려뇨
 사람아
 너- 그리하지 말아
 두고 보면 알 것이거늘
 내- 구태여 원한은 안 지으련다 (31-32쪽)

이 시의 화자는 젊은 남성이다. 어느 여성에게 연정을 품었는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큰마음 먹고서 구애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다. 그녀가 ‘봉황의 날개’를 지닌 잘난 존재인 반면, 자신은 ‘빨아먹은 불레쥬생이(보리수열매 찌꺼기)’처럼 초라한 신세이기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한이 맺힌 듯,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전언한다. 자신이 언제까지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만 남아 있을 것 같으냐며 입술을 앙다문다. 겨울철 햇빛은 아까시나무에도 따뜻한 봄이 되면 하얀 꽃이 만발하게 되듯이 자신에게도 머지않아 인생의 봄날이 오리라는 것이다. 두고 보면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는 약간의 응징의 심정도 내비친다. 아까시나무가 품은 가시가 화자의 가슴에서도 감지된다. 그러면서도 굳이 원한은 갖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저변에는 감정의 앙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최길두가 번역한 막심 고리키(Maxim Gorkiy, 1868-1936)의 『가을의 일야(一夜)』는 영어 제목으로는 『One Autumn Night』로 알려진 단편소설로, 고리키가 20대 중반이던 1895년의 작품이다. 앞부분의 일부, 즉 1/6 정도의 분량만 실려 있다. 마지막에 ‘계속’이라고 적혀 있지만 신년호에 이 번역소설은 연재되지 않았다. 낯선 도시에서 여비도 떨어지고 머물 곳도 없는 어려움에 처한 ‘나’가 동갑내기 여자인 ‘나타샤’를 만나 그녀의 사연을 듣는 등 하룻밤을 함께 지낸 후 헤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현진건이 『가을의 하로밤』이라는 제목으로 1922년 7월 『개벽』 25호의 ‘해외결작명편부록’을 통해 번역 발표한 적이 있다.²⁵⁾ 현진건의 번역은 일본인 에토 도시오(衛藤利夫, 1883-1953)의 『秋の一夜』를 중역한 것이다. 에토 도시오는 러시아어 원작이 아니라 러시아 출신의 미국인인 토마스 쉘처(Thomas Seltzer, 1875-1943)가 영어로 엮은 『베스트 러시아 단편소설(Best Russian Short Stories)』²⁶⁾을 발췌 번역하여 『노국16문호집(露國十六文豪集)』²⁷⁾을 펴냈던 것이니, 결국 ‘러시아어→

25) 현진건, 『현진건 문학 전집』5, 국학자료원, 2004, 49-60쪽에도 수록되었다.

26) Thomas Seltzer, *Best Russian Short Stories*, New York: Modern Library, 1917.

영어→일본어→한국어'의 과정으로 3중 번역된 셈이다.²⁸⁾

이 작품의 일본어 번역본은 더 있다고 하나²⁹⁾ 최길두가 번역한 텍스트도 역시 에토 도시오의 번역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제목에서는 물론이요 두 가지 번역 텍스트를 함께 들여다보더라도 그럴 만한 근거들이 포착된다. 러시아어 텍스트를 직접 번역한 경우³⁰⁾에는 제목을 「어느 가을날」로 옮기고 있으며 주인공의 나이도 '17살'이라고 한 데 비해, 현진건의 최길두의 번역은 모두 「가을의 하로밤」이나 「가을의 일야」로, 주인공의 나이를 '십팔 세'·「十八歲」로 각각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을의 일야」에 '벼랑'(별로), '벽금'(거품) 등의 제주방언이 구사된 점을 보면 최길두가 현진건의 번역을 참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일본어 텍스트를 놓고 번역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극로(李克魯, 1893-1978)의 「한글 노래」 노랫말(歌詞)이 실린 점도 주목된다. 이는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작곡의 노래인데, 악보는 실리지 않았다. 3절로 된 노랫말 전문(全文)이 실린 것으로, 1절의 후반부(슬기에~갈거나)는 노래의 후렴 부분이다.

1. 세종님금 한글 펴니/ 스물여덟 글자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하다
슬기에 주린 무리여/ 한글 나라로³¹⁾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려 갈거나
2. 온 세상에 모-든 글씨/ 건주어 보아라

27) 토마스·셀첼編, 衛藤利夫譯, 『露國十六文豪集』, 新潮社, 1919.

28) 권정희, 「일본어 번역의 매개로 읽는 현진건의 단편 번역소설—『행복』·『가을의 하로밤』·『고향』을 중심으로, 『사이間SAI』2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146-148쪽.

29) 1903년 바바 고초(馬場胡蝶), 1909년 소마 교후(相馬御風) 등의 번역이 있다고 한다. 위의 논문, 147쪽.

30) 막심 고리키, 최홍근 옮김, 「어느 가을날」, 『어머니/밑바닥/첼카쉬』, 동서문화사, 2014, 656-664쪽.

31) 『조선주보』나 악보 자료에는 “슬기에 주린 무리/ 이 한글 나라로”로 되어 있다.

조리 있고 아름답기/ 으뜸이 되도다
3. 오랫동안 문힌 옥돌/ 갈고닦아서
새빛 나는 하늘아래/ 골고루 뿌리세 (33쪽)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하고, 조리 있고, 아름다운 으뜸의 글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조국에서 잘 갈고 닦고 활용하여 널리 빛내자는 주장이다. 한글 사랑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는 정신이 잘 담긴 노랫말이다. “한글’이 민족문화 창조의 근본이 된다는 어문민족주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³²⁾고 할 수 있다.

이극로는 1945년 10월 9일 서울 천도교 강당에서 열린 해방 후의 첫 한글날 행사에서 조선어학회 간사장으로서 기념식 인사말을 했다. 같은 날 오후 시가행진 때에 학생들과 조선어학회·한글문화보급회 등의 참가자들이 바로 위의 『한글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 노래는 한동안 한글 행사 때마다 불리고 있었으나 이극로가 1948년 4월 16일 남북연석회의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후로는 남한에서의 공식석상에서 불리지 않았다.³³⁾

『한글 노래』는 『신조선보』(1945. 10. 9), 『조선주보』 4호(1945. 11), 『백민』 창간호(1945. 12), 『여성문화』 창간호(1945. 12, 악보와 함께 실림) 등에 수록되었다.³⁴⁾ 해방되자마자 널리 유포되어 불렀다는 것이다.³⁵⁾ 그

32) 고영근, 『이극로의 사회사상과 어문운동』, 『한국인물사연구』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 365쪽.

33) 위의 글, 같은 쪽.; 한정호, 『이극로의 ‘고투 40년’ 문학살이 연구: 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30, 영주어문학회, 2015, 166-167쪽.

34) 한정호, 위의 글, 167쪽.

35) 북한 문헌(정순기·정용호, 『조선어학회와 그 활동』, 사회과학원, 2001)에서는 1931년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편된 이후에 대중계몽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교양과 민족적 자존심과 자주의를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의 노래를 창작하여 보급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면서 그 가사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밑줄(인용자) 그은 부분(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부분) 외에는 거의 같다.

런 면에서 보면 동일한 시기에 제주에서 간행된 『신생』 개간호에 이 노랫말이 실렸음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독립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려는 이극로의 노력이 제주의 『신생』 편집주체들과 상통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추월(秋月)』은 ‘오도시사(吾道詩社)’라는 단체 이름으로 발표된 한시이다. 『한글 노래』 바로 다음에 수록되었다.

愛月相尋酒國春 (사랑스러운 달이 떠서 서로 찾는 술 취한 봄날
人留明月留人 사람은 밝은 달 잡아두고 달은 사람을 머물게 하네
鐘中宇宙避如通 종소리 속의 우주는 피하는 듯 통하고
畫外江山舊換新 그림 밖 자연은 새로 바뀌었네
三太白來皆是興 이태백 세 명이 찾아오니 흥취가 일고
百東坡去復誰眞 소동파 백 명이 떠나가니 어느 누가 진짜인가
昔時醉詠非專美 취해 읊는 멋진 일 예전에만 있던 일이 아닌데
今日風流文化隣 오늘의 풍류문화는 그 때와 비슷할지)³⁶⁾ (33쪽)

오도시사는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한시 쓰는 이들의 모임으로 짐작된다. 제주의 대표적 한시 모임으로 전통 깊은 영주음사(瀛州吟社)³⁷⁾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모임인 듯하다. 하지만 오도시사의

1. 세종임금 한글 펴니/ 스물여덟 글자/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해라
(후렴) 슬기에 주린 무리야/ 이 한글나라로/ 모든 문화 그 뿌리를/ 배우러 가져라

2. 온 세상 모든 문자/ 건주어 보아라/ 과학적인 문자로서/ 으뜸이 되도다

3. 오래 동안 문헌 옥돌/ 갈고 또 닦아서/ 빛을 잃은 이 땅 우에 골고루 뿌리세.(28쪽)

그러나 고영근은 이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글 노래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고영근, 앞의 글, 365쪽)고 하였다.

36) 원문에는 해석이 없음.

37) 영주음사는 1897년 조직된 ‘귤원시회(橘園詩會)’에 뿌리를 두고 1924년에 123명이 설립한 한시 창작 모임으로, 현재에도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체나 활동 내역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신생』 신년호에는 오도 시사의 광고도 실렸는데 대표자나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신생』의 간행 주체들과 가까이 지냈던 모임으로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평기비판론(新風紀批判論)』은 고석지의 일반적인 문체와는 다른 느낌이 더러 있다. 최길두가 썼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유행에 민감한 세상에서 제주에 새로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글이다. 그 가운데 매일 노상에서 접하게 되는 ‘처녀행상군(處女行商群)’을 걱정하며 꼬집고 있다.

(…) 보통 십삼,사,오,륙 세 되는 처녀들이 비스킷 과자, 조소영미국(朝蘇英米國) 담배, 미국 성냥, 실과 등 여러 가지 남자가 파는 물건을 구덕에 가득 놓고 노변에 가달을 받기고 앉아 있다.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 먼저 인사를 하고 ‘이거 삼서’ ‘요거 삼서’ 하는 제주 독특한 처녀 상인의 신평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좋은 풍속일까. 제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노동하고 상업이나 농업이나 무엇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함은 고래(古來)의 풍속으로, (…) 그 상인의 행동이 더럽고 야속하고 까다롭고 잘다 빠드다 하는 감상이 있는 것을 어린 처녀들이 꼭 그 대로 뿐 보고 있으니, 이것을 그리 장려할 장사꾼이 아니라는 악감(惡感)을 금하지 못한다. 이러한 장사 풍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돈에 팔아버리고 그래도 심상한다. 그렇게 해도 돈이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밋게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 인정도 도덕도 아무것도 모르는 돈의 종놈이 되어 이제는 자기 몸뿐 아니라 나라도 팔아먹고 그래도 도적질을 하며 미군이 먹다 돈 빵, 반찬 주시, 똥, 오줌까지 도적질하여 온다. 똥, 오줌을 슬쩍슬쩍 도적질하는 어미 가정부인을 보고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해준 일이 있고 자기 집 곱팡에 쌀가마니를 감추어 놓고 다시 도적질하러 가는 부인이 있으니 이것은 처녀행상군의 졸업생인데 종뽕랭이 맞아서 죽었다 한다. (20-21쪽)

여성은 모름지기 조신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관점이 엿보인다. 외국

담배, 미군이 먹다 버린 빵을 예시하는 부분에서는 시의성이 포착되기도 한다. 분노까지 흠친다는 과장된 표현, 도적질하는 부인(婦人)을 처녀행상의 졸업생으로 규정하는 위트 있는 표현 등도 눈길을 끈다. ‘가달’(다리(脚)), ‘삼서’(사세요), ‘뽀 보다’(따라 하다), ‘주시’(찌꺼기), ‘곰팡’(고방(庫房)), ‘종뽀랭이’(후줄근하게) 등의 제주방언이 자주 구사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1. 처녀행상군’이라고 번호를 매긴 중간제목을 붙여 다음호에 제주의 여타 새로운 풍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처럼 표현했지만, 신년호에 이 꼭지가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신생』 개간호에는 문학작품으로 시, 번역소설, 노랫말, 한시, 수필 등을 고루 수록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극로의 노랫말 「한글 노래」가 실린 점은 해방조선의 신건설에 즈음한 어문민족주의가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시 「원한」, 번역소설 「가을의 일야」, 수필 「신풍기비판론」에서 제주방언이 구사되고 있는 점이라든가, 「신풍기비판론」에서 당시 제주의 세태를 포착해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제주도 최초의 잡지로 알려진 『신생』에 대해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최근에 관련 자료가 새로이 발굴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기초적, 실증적 논의가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945년 12월 10일 36쪽 분량의 잡지 『신생』이 월간종합지를 표방하면서 제주에서 간행되었다. 『신생』은 사실상 창간호이면서도 ‘개간호’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잡지 간행을 주도한 고석지가 『평론』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같은 해 10월 25일에 창간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고석지가, 『평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제주의 문학인들(최길두, 이영복)과

함께 ‘신생사’를 조직하고 간행한 첫 잡지가 ‘개간호’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신생』이라는 것이다. 『신생』은 이듬해 1월 20일 ‘신년호’를 낸 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니 ‘개간호’가 창간호, ‘신년호’가 종간호가 된 셈이다.

『신생』의 창간 취지는 해방조선이 새로이 건설되기 위해서 개성과 지성과 창의를 발휘되는 문화조선을 지향함으로써 문명과 평화에 기여하되, 친일세력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현안이나 행사에도 주목하겠다는 다짐으로 나타났다. 개간호에 수록된 18편의 글 중 7편이 기명이고 그 중 3편은 고석지의 글인데, 무기명 글들의 대부분도 중도적 진보주의자로 짐작되는 고석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적, 사회적인 사항이 주로 다루어졌는데, 민주와 자유에 기반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헌법제정의 중요성, 경제적 안정, 압제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 운영하자는 지역 관련 제안도 내놓았다.

개간호의 문학작품으로는 시, 번역소설, 노랫말, 한시, 수필 등을 고루 수록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극로의 노랫말 『한글 노래』가 실린 점은 해방조선의 신건설에 즈음한 어문민족주의가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수필 『신평기비판론』에서 당시 제주의 세태에 주목한 점, 시(『원한』)·번역소설(『가을의 일야』)·수필에서 제주방언이 구사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생』 개간호야말로 해방 공간의 제주사회를 다방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 제주에서의 문학 활동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요, 제주 출판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며,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과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4·3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신생』 개간호, 신생사, 1945. 12. 10.

『신생』 신년호, 신생사, 1946. 1. 20.

2. 참고 논저

고영근, 「이극로의 사회사상과 어문운동」, 『한국인물사연구』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 325-397쪽.

권정희, 「일본어 번역의 매개로 읽는 현진건의 단편 번역소설—『행복』·『가을의 하로밤』·『고향』을 중심으로」, 『사이間SAI』2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135-169쪽.

김동윤,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 『신생』을 중심으로」, 『영주어문』4, 영주어문학회, 2002, 165-188쪽.

김영화, 「제주문학 80년」,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김찬흡, 『20세기 제주 인명 사전』, 제주문화원, 2000.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1991.

이영복, 「나의 재직 시절」, 『제주신문』 1979.8.20.

정순기·정용호, 『조선어학회와 그 활동』, 사회과학원, 2001.

『제주문학: 1900-194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제주시 문화예술인 인명사전』, 제주시, 2016.

한정호, 「이극로의 ‘고투 40년’ 문학살이 연구: 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영주어문』30, 영주어문학회, 2015, 141-176쪽.

현진건, 「가을의 하로밤」, 『현진건 문학 전집』5, 국학자료원, 2004.

막심 고리키, 최홍근 옮김, 「어느 가을날」, 『어머니/밑바닥/첼카쉬』, 동서문화사, 2014.

<Abstract>

A Study on Jeju Island's First Magazine
『Shinsaeng(New Life)』

Kim, Dong-Yun*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basic and empirical consideration as data related to 『Shinsaeng(New Life)』, known as the first magazine in Jeju Island, was newly discovered.

『Shinsaeng』, published on December 10, 1945, was published under the name of Gaeganho, but it is actually the first issue. Since Ko Seok-ji, who led the magazine, launched the newspaper titled 『Pyongron (Review)』 on October 25 of the same year, “Shinsaengsa”(新生社) was organized and published with Jeju Island's literary people (Choi Gil-doo, Lee Young-bok) with the meaning of inheriting the 『Pyongron』.

The magazine, which advocates a comprehensive magazine, was founded with the intention of contributing to civilization and peace by aiming for a cultural Joseon(korea) in which individuality, intelligence, and creativity were exercised in order to build a new homeland, but emphasizing the liquidation of pro-Japanese forces. The first issue of 『Shinsaeng』(republishing issue) contains not only political and social contents related to the 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homeland, but also literary writings such as poems, Chinese poems, song lyrics, translation novels, and essays.

Therefore, this book must be a valuable text that can grasp the

*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ociety of the liberation space in various ways. Through this, significant supplementation of literary activities in Jeju will be mad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 history of Jeju publishing should be rewritten, an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April 3 study.

Key Words: 『Shinsaeng(New Life)』, 『Pyongron(Review)』, Ko Seok-ji, Jeju Island Magazine, First Issue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24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16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17일